

# 무용지물 기초의원 선거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4인 선거구제 놓고 거대·소수당 갈등 심화돼  
기초의원정수, 광역의회 ‘입맛대로’ 가능성 높아  
“선거구 획정 권한, 선관위에 일임해야” 주장도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행위다”

서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가 열린 20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직전 의정석을 점검하고 바른미래당 시의원 8명이 4인선거구제 당위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회의 전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수정안에서 2인 선거구는 수정 전인 111개, 3인 선거구는 1개 증가한 49개, 4인 선거구는 삭제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적 99명 중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원과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며 진행요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인 선거구란 1개 선거구에서 4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개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지만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는 보통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에서도 2인 선거구의 경우 집권당이나 제1야당 등 거대정당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도 선출될 수 있어 의원 진입장벽이 낮다.

시·군·구별 지역구 의원 정수는 광역의회가 결정하게 돼 있다. 집행부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획정안을 제출하면 광역의회가 이를 심의처리하게 돼 있다. 만약 획정안을 광역의회가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된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 권한이 의원들에게 있다 보니 이들 입맛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는 1031개 소로 4인 선거구 수는 2014년 29개(2.8%)보다 1곳

적은 28개(2.7%)로 확정됐다. 중·대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며 각 시도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3인 선거구 비율을 42.8%, 4인 선거구 비율을 6.7%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지만 각 광역의회들이 수정한 탓이다. 선거구 획정안의 최종안 그대로 가결한 곳은 충북, 경남, 경북 3곳에 불과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광역의회가 그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3·4인 선거구제는 선거지역이 넓어지고 주민 의견을 가까이서 듣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 자력 미달자가 당선될 수 있다”며 2인 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등에 목소리를 높여온 거대 정당들이 선거구제 개편에서 ‘나뉘 먹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축된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 담합안을 통과시켜 분노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로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가 명시된 바 있고 관련 내용을 개편안에 제시했음에도 여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한국당과 기득권 지키기 담합에 나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광수(바른미래당·노원5) 시의원도 “지방선거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3~4인 선거구를 확대시행해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획정 권한을 의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시민추진연합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최종권한을 광역의회에 일임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에 종속되는 결과만 유발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선관위가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진 기자 neunga@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직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의원들이 4인 선거구제를 실현하라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김광수의원실 제공

## 야당 “지방선거, 쓸만한 인재가 없네”

한국당, 영남 텃밭서도 인재 가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후보 기권

6·13지방선거가 8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가 본격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인물난으로 각 당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차기 대권주자 자리로 평가받는 서울시장 후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홍정욱 전 의원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해 당에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단수 혹은 우선추천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사실상 경선을 치를 인재가 없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사정이다. 창당 후 첫 선거임에도 후보 기권에 시달리고 있는 것. 바른미래당 안철수는 인재영입위원장직까지 맡으며 인물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영 어긋지 못한 실정이다.

또 민주평화당의 경우 당 소속 의원 14명 중 9명의 지역구가 광주전남에 몰려있어 이번 선거가 당 생존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유영재 기자 jae-63@

##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 해드려요”

선관위 선거연수원, 유권자 대상 강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6일부터 공공기관·대학교·단체·모임 등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을 운영한다.

전국 어디든지 강연을 원하는 곳에는 선거연수원 전문 강사가 찾아가 강연을 펼친다. 강연 주제는 ‘소소한 참여 행복한 동네민주주의’로 생활 속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연 신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로 문의하면 된다.

2014년 시작한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은 그동안 1800여 회, 10만 여명의 유권자가 강의를 들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일정과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각 후보자 정보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 수는 2046개이며 지금까지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시·도지사·지자체, 교육감, 국회의원 등을 모두 합쳐 5105명으로 전체 경쟁률은 1.4대 1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선 기자 seschaff.a@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5월 24일~5월 25일
사전투표소 투표	6월 8일~6월 9일(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	6월 13일(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 동네는 내가 책임진다!

# 아름다운 선거

# 행복한 우리 동네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공모기간** 2018. 3. 22. ~ 4. 20.

**대상** 누구나

**공모분야** 웹툰/영상/포스터/일러스트/캘리그래피

**공모주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 생활 속 민주주의, 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 등

**응모방법**

- 콘텐츠 제작
- 각종 커뮤니티 포스팅
- 중앙선관위 네이버 블로그 정당당스토리내 콘텐츠 공모방에 포스팅 URL 게시
- 접수지원서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nec\_contest@naver.com)  
※ 접수지원서는 정당당스토리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접수 : 2018. 3. 22. ~ 4. 20.  
발표 : 2018. 4. 30.  
시상식 : 2018. 6월 경

**제출형식** 웹툰/포스터/일러스트·캘리그래피 : 제한없음

영상

- 길이 : 제한없음 (단, 1280×720 픽셀(HD급) 이상)
- 확장자명 : mp4, wmv, avi, mov
- 영상형식 : 모션그래픽, 바이럴, 뮤비, 드라마 등 자유

**시상**

상명	훈격	작품 수	상금
최우수상	중앙위원장상	4개 분야 각 1편	총 4편 각 120 만원
우수상	-	4개 분야 각 2편	총 8편 각 80 만원
장려상	-	4개 분야 각 3편	총 12편 각 30 만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